

“귀농은 전남 인구 활력·지역경제 이끄는 새로운 동력”

전남도, 귀농·귀촌인 도전 응원·지역 발전 기원

완도서 어울림대회 열어 화합·교류의 장 펼쳐

전남도는 지난 14일 완도 청해진스포츠허에서 ‘2025년 귀농귀촌인 어울림대회’를 열어 귀농·귀촌인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전남귀농귀촌인연합회(회장 김민주)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새로운 시작, 함께 만드는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열려 전남 귀농·귀촌인과 가족, 관계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색소폰과 가야금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신의준 전남도의회 의원, 귀농귀촌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귀농귀촌인 도지사표창,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김치에 여수시 귀농귀

촌협회 사무국장 등 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이성상 완도군 귀농귀촌협회장 등 6명에게 전국 및 도 연합회장 공로패가 각각 수여됐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도전과 전남도의 발전을 함께 염원하는 의미로, 주요 내빈이 무대에 올라 ‘농업·농촌의 희망’, ‘전남 귀농귀촌인’, ‘OK, NOW 대한민국 AI 수도’라는 문구가 적힌 세 개의 박을 터트리며 새로운 출발과 전남의 도약을 기원했다.

김영록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귀농·귀촌은 전남의 인구 활력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라며 “전남에 정착한 보람을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AI 데이터 유치 등 전남에 생긴 기회를 잘 활용해 전남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앞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완도군 청해진스포츠허에서 열린 ‘2025년 귀농귀촌인 어울림 대회’에서 주요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도 더 많은 분이 전남으로 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전남귀농귀촌인연합회장은 “회원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남 귀농귀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며 “새로운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시군 귀농귀촌인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전시 부스가 운영돼 다양한 지역 농산품이 소개됐으며, 참석자

는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고 지역 간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또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재능공연과 장기자랑이 펼쳐져 웃음과 화합의 분위기 속에 행사가 마무리

됐다. (사)전남도귀농귀촌인연합회는 2016년 설립돼 현재 4751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13기 광남일보글로벌리더 아카데미, 태국 졸업여행 성료

오는 12월 4일 수료식을 앞둔 제13기 광남일보글로벌리더 아카데미(회장 전민수·취청도 대표이사) 원우들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진행된 졸업여행을 통해 화합을 다졌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3박 5일간 진행된 이번 여행에는 전민수 13기 원우회장과 원우 23명이 참석했다.

여행은 골프 대신 모두 관광 위주로 진행. 원우들이 더 많은 교류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원우들은 12일 광주를 출발해 오후 6시 김해공항에서 치앙마이로 향했다.

첫날 일정으로 치앙마이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위치한 치앙라이를 방문해 하얀색의 눈꽃사원, 산꼭대기에 위치한 거대한 광음상 레드사원, 푸른색의 정교한 조각이 돋보이는 블루사원 등 태국 불교의 숨은 매력을 체험했다. 저녁에는 인근 연회장에서 ‘원우의 밤’ 행사를 열어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둘째 날에는 치앙마이의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손꼽히는 도이스텝 사원을 방문해 소수민족 마을인 카렌족 마을을 탐방했다.

이어 피닉스 어드벤처에서 줌라인과 정글트레킹을 즐기고, 현지 커피를 맛보며



제13기 광남일보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들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진행된 졸업여행을 통해 화합을 다졌다.

원우 23명, 12~16일 치앙마이에서 문화·자연 체험 등 친목

원우의 밤·유적지 탐방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화합’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메탄코끼리파크에서 코끼리쇼와 코끼리 트레킹, 물소마차 체험과 뗏목 레프팅 등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저녁에는 인근 호프집에서 간단한 술잔을 기울이며 자유로운 시간을 이어갔다.

이날 저녁 생일을 맞은 김은정, 박화

실, 편미월 원우를 위한 깜짝 생일 축하 이벤트가 마련돼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 날에는 치앙마이의 숨은 유적지인 위앙꿈꿈과 왓체디루앙, 버섯 우상마을을 방문하고, 태국 최대 수공예 단지를 탐방했다. 이어 저녁 식사 후 아누산 야시장에서 쇼핑을 즐기며 치앙마이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민수 회장은 “이번 졸업여행에 적극 참여한 원우들과 준비를 도와주신 임중재·정광래 수석부회장, 김은정 한송 여행사, 조기욱 사무총장, 박은화 재무총장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원우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번 여행이 참 잘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좋은 감정이 졸업 후에도 이어져 평생의 벗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시 ‘스마트농업 교육’ 대상…3년 연속 수상

맞춤형 교육체계·현장 중심 컨설팅 성과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5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2023년 데이터 활용 분야 대상, 2024년 교육·컨설팅 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교육·컨설팅 분야 대상까지 3년 연속 수상하며 스마트농업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입증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경진대회’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장 운영사례를 평가, 스마트농업 확산과 지역 역량 강화에 기여한 우수 모델을 선발하는 전국 단위 경진대회다. 주요 내용은 △교육생 기술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농업인 자기주도 학습형 데이터 활용 현장상담(컨설팅) 운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자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등 사후관리 지원 체계 확립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시설·노지의 한



경·생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농촌진흥청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광주형 데이터 활용 모델’을 개발·보급한 성과로 대상에 선정됐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농가 데이터를 활용한 광주형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북구새마을회는 최근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스마트 팜 채소 나눔 행사’를 개최, 인근 주민 200여명에게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전달했다.

광주북구새마을회, 채식의 날 나눔봉사 활동

오치종합사회복지관서 스마트팜 채소 나눔

광주북구새마을회(회장 이문영)는 최근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스마트 팜 채소 나눔 행사’를 개최, 인근 주민 200여명에게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북구새마을회가 운영 중인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상추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며,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북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10여명이 참여해 채소 포장과 전달에 힘을 보렸으며, 복지관을 찾은 주민들에게 직접 손수 전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문영 북구새마을회 회장은 “스마트팜에서 자란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며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와 환경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새마을회는 앞으로도 재배 품목을 확대해 채소는 물론 모듬도 나눔할 계획이다.

윤용성 기자 yoi1404@

인사

광주상공회의소 ◇송진

△기획조사본부

본부장 박시현



농협 전남본부와 광주대학교는 지난 14일 영암군 금정면에서 대봉감 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농협 전남본부-광주대, 대봉감 수확 일손돕기

간호학과 학생 등 200명 참여

농협 전남본부와 광주대학교는 지난 14일 영암군 금정면에서 대봉감 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광일 본부장, 정현정 지부장, 최영택 조합장, 장미영 광주대학교 부총장과 간호학과 학생 150명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금정농협 4개 마을로 나뉘

영농 인력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대봉감 수확 작업을 도우며 일손을 보탰다. 참여자 전원은 농협이 새롭게 추진하는 대국민 농업·농촌 가치 확산 캠페인 ‘농심천심 윤동’ 취지에 공감하며, 농업가치증대 전략인 영농인력 공급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영농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대학·기관·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광양시 홍보대사 조승환, 미얀마 식수 우물 조성

준공식서 ‘열음 위 맨발로 서 있기’ 세계신기록 달성

광양시 홍보대사이자 국제환경운동가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씨가 ‘열음 위 맨발로 서 있기’ 세계 신기록을 다시 세웠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 고마다 사원(Gomada Temple)에서 열린 식수 우물 준공식에 초청돼 ‘열음 위 맨발로 서 있기’ 5시간 30분을 기록했다.

고온다습한 기후와 불안정한 상수도 시설로 식수가 부족한 미얀마에서 이번 우물 조성은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위생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깊이 1000m의 식수 우물은 총 2200만 원의 후원금으로 완공됐다. 이종 조씨가 ㈜진행워터웨이와 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모델료 전액(1700만 원)을 기부했다.

나머지 금액은 여러 인사와 단체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국제환경운동가로 활약 중인 광양시 홍보대사 조승환씨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과제 속에서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광양시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신한 영향력을 실천해 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